

투데이 칼럼

후보는 선심성 약속 아닌 도민 미래 위한 정책 펼쳐야

본 격적인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건물에는 후보자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후보자들의 이름과 구호가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다.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자마더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약속 속에서 우리 유권자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최근 발표되는 후보자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눈에 띈다.

기본소득 지급,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포장된 '현금성 지원 정책'과 파크골프장 건설 등 선심성 공약이 그것이다. 얼핏 보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선의의 구호처럼 보인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요즘,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누구에게나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땀 흘려 번 돈이고,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아껴 쓰며 남부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게 모인 재원이 선거철에 단기적인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특히 노력 없이 주어지는 '눈먼 소득'은 쉽게 들어오는 만큼 쉽게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사라지기 마련이다. 여름철 혈령한 삼베 바지 사이로 바람 빠지듯, 체감도 없이 흩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가치는 땀과 노력,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근로자의 생산 속에서 만들어진다. 국가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분배 이전에 '이익 창출'에서부터 시작된다.

세계의 여러 사례를 돌아보면,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단기적인 환호 속에 시작된 정책들이 결국 국가 재정 위기를 불러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사례는 결코 낯설지 않다.

달콤한 약속은 도민에게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결국 미래 세대의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5천 년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렀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잃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문화와 경제, 민주주의 등 여러 분야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일부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고, 경제는 정체의 늪에서 썩어넘어 버려져 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기회'이며, 소비가 아니라 '성장'이다.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쉬운 선심성 공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진정한 지도자라면 후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인기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경제 회복을 고민해야 한다.

좋은 정책이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우리 전부가 스

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 산업,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좋은 정책이다.

유권자 역시 달라져야 한다. 선심성의 달콤한 약속에 흔들리기보다 그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는 6.3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 인류 문화는 세계를 사로잡고, 우리의 식품과 기술은 국제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의식은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은 더 이상 도민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말하기보다 '도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와의 후손들에게 어떤 발전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표를 위한 약속이 아닌, 전복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독자제언

최근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로 시작되는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대표적인 금융범죄이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가족이

작은 의심 한번, 당신의 돈을 지킵니다

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까지 더해지며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노쇼사기 또한 지역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단체예약을 가장해 음식이나 물품을 대량 주문한 뒤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 달라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군부대를 사칭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는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금전 요구나 물품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이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방심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의심은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작은 확인과 주의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해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설

전주 관광명소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전주시 완산구의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는 과거 재난 상황에 대비해 조성한 방공호였다. 이곳은 지난해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으로 탈바꿈하며 전주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개관 1년을 맞은 요즘 이곳 전시관은 추위를 피해 실내를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관람객들은 10개 구역으로 나뉜 전시관을 이야기 흐름에 따라 둘러보며 곳곳에서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겼다.

전시 설명을 읽으며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은 전시 내용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화려한 미디어아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허공에 손을 뻗거나 바닥에 비친 색색 아트 위를 따라 움직이기도 했다. 눈이 즐겁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해 만족스럽다고 한다.

완산병커더스페이스의 전시는 관람객이 병커로 들어서면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는 설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 흐름에 따라 다중 우주로 형상화한 미디어아트 공간이 펼쳐진다. 전시 후반부에는 우주선 조종 체험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공간과 직접 그린 그림을 화면에 띄울 수 있는 미디어 캔버스 공간이 마련돼 있다.

관람을 마친 이들은 이곳에서 체험을 이어갔다. 체험관에 발을 들인 아이들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화면에 등장하자 환호성을 질렀다. 전시뿐 아니라 체험 공간도 있어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는 매주 화~일요일(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입장료는 성인 1만 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4~12세) 5000원이다. 전주시민과 20명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별전 '대한민국 안중근 쓰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을 맞아 안중근의사승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전 '대한민국 안중근 쓰다'를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3월 8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서'(書)의 지역상생 순회전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는 출생부터 애국계몽운동과 항일 의병 활동, 단치동맹, 하얼빈 의거, 재판과 순국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안중근 의사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전달한다.

대표 작품은 안중근 의사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경천(敬天)'이다. 하늘님을 공경하라는 뜻으로, 안중근 의사가 무슨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당하기 전에 썼다. 네 번째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손도장이 찍혀 있다. 이 작품은 올 1월 11일까지 단 6주간 전시되며, 이후에는 '천당자복 영원지락(天堂之福 永濼之樂)'으로 교체됐다.

전시 끝에는 '순교의 땅, 전주와 전북 지역의 천주교' 공간을 함께 마련했다. 천주교 신앙은 안중근 의사 생애에서 중요한 축이었다.

전북은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윤지충·권상연을 비롯해 많은 순교자의 역사가 서린 곳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은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통해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 신앙인의 면모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특히 전주는 한국 천주교 순교의 성지인 만큼 그의 신앙과 평화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